

#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2.

I. 일반개황 .....	2
II. 경제동향 .....	3
III. 정치·사회동향 .....	10
IV. 국제신인도 .....	13
V. 종합의견 .....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300천km <sup>2</sup>	G D P	1,559 억 달러 (2009)
인구	91.98 백만명 (2009년)	1 인 당 GDP	1,751 달러 (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 공화제	통화단위	Peso
대외정책	친서방 민주주의	환율 (달러당)	47.68 (2009)

- 필리핀은 1565년부터 스페인 및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1943년에는 일본에 의해 점령을 당함.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태평양에 둘러싸여 타이완섬과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 사이에 위치하며, 7,107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국가로 루손과 민다나오섬이 총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마르코스 정권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부정부패에 따른 국가 발전 정체로 'sick man of Asia'로 불릴 정도로 낙후한 국가로 전락한 바 있음.
- 1986년 시민봉기로 마르코스 정권이 종식된 후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며, 피델 라모스 대통령 이후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음.
- 2010년 5월 10일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세계 정치사에서 최초로 모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필리핀에서는 9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5.3	7.1	3.7	1.1	6.2
재정수지 / GDP	-1.1	-0.2	-0.9	-3.9	-3.9
소비자물가상승률	6.2	2.8	9.3	3.2	3.9

자료: IMF, EIU

#### □ 빠른 경기 회복세 시현

- 2007년 7.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민간 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등으로 2008년 3.8%로 하락하였음.
- 2009년에는 상반기 중 세계경기 침체 영향 지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유입 증가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국내소비 및 투자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 상반기 중 고정자본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하는 등 투자 확대와 더불어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및 5월 중 실시된 대선 및 총선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안정된 물가 수준 유지

- 필리핀의 소비자물가는 2008년 상반기 주요 식료품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 하락과 소비수요 위축에 따라 연평균 9.3%로 하락하였음.

- 2009년 상반기까지 국제 상품가격 하락,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되어 8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년 이래 최저인 전년동월 대비 0.1%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 국제 유가 및 상품가격 상승,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함.
  - 2010년 상반기 중 건조한 날씨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물가가 상승 조짐을 보였으나 8월초까지 2010년 수입예정분의 94%인 200만 톤을 조기에 수입 완료하는 등 쌀 공급물량 확대로 물가가 안정되었으며, 최근 미달러 대비 폐소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목표물가 범위(3.5%~5.5%) 내인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미달러 대비 필리핀 폐소 동향(평균) : 44.323('08) → 48.149('09. 3분기) → 46.768('09. 4분기) → 46.027('10. 1분기) → 45.509('10. 2분기) → 44.314('10. 9월)

####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필리핀은 취약한 세수기반 및 세무행정능력 미흡에 따른 낮은 세수입과 지역 표심 획득을 위한 정부의 선심성 예산 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려 왔음.
- 그러나 2002년 GDP 대비 5.4%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2007년에는 10년 이래 최저치인 GDP의 0.2%를 기록함.
-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 상대 식료품 지원 및 현금보조금 지급 등 지원 확대로 정부지출이 증가한 반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0.9%로 확대되었음.
- 2009년 중에는 경기 침체 및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민영화 자산 매각 처리 부진,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9%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중에는 전년도 감세 정책의 영향에 따른 제한적인 세수 확대 및 5월 중 대통령 및 의회 선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GDP 대비 3.9%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취약한 제조업 기반

- 필리핀 경제에서 산업별 비중은 2009년 기준 농업 및 임수산업이 GDP의 14.8%, 서비스산업이 55%, 2차 산업이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 중 제조업은 전체 GDP의 20.4%를 차지함.
-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제조업(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액 8,165억 페소(186억 달러) 중 정유 및 연료 제품(21.4%)과 반도체 및 전자부품(10.2%)의 비중이 크며 그 밖에 식품 가공업(5.0%), 유제품(4.6%), 담배(4.3%), 음료(4.0%) 등 국내수요 위주의 소비재 산업에 집중됨.
- 이에 따라 수출품목도 반도체 및 전자품목이 전체 수출의 60%에 이를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임.

#### □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

-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1965년~1986년) 독재 정권시 부정부패 문제와 에스트라다 대통령(1998년~2001년)의 부동산 투기 및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 따른 사임, 아로요 대통령(2001년~2010년)의 선거부정과 친인척의 뇌물수수에 따른 탄핵 위기 등 오랜 기간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해옴.
- World Bank에서 발표한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필리핀은 2009년 중 동아시아의 경제규모 상위 10대 국가 중 부패관리도(Control of Corruption)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법치(Rule of Law) 지수에서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함.
-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조세회피 등과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세수율이 낮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

## □ 극심한 빈부격차

- 2006년 기준 필리핀의 소득수준 상위 20%가 전체 국민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5.6%에 불과하는 등 빈부격차가 심함.
- 중국 화교가 필리핀 상권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일일 소득이 1.25달러에 불과한 국민이 전체의 22.6%를 차지하는 등 극빈층은 두터운 반면 중산층은 미약함. 빈곤층의 6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간 빈부격차 또한 큼.

## 나. 성장 잠재력

### □ BPO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의 50%를 초과하는 필리핀은 최근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필리핀의 BPO 산업은 인도에 이어 2위 규모로 세계 BPO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자국 BPO 산업이 2010년 중 1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고용인원 또한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동 산업을 투자유치 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에 포함시키고,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을 일반 기준 40%가 아닌 100%까지 허용하는 한편 소득세, 수출세 등에 대한 면세 및 감세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숙련된 미국식 발음의 영어구사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 풍부한 광물자원

- 필리핀은 구리, 금, 니켈, 은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에 대한 합헌 판결로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100%까지 허용됨에 따라 최근 광물자원, 석유 가스 등의 탐사 개발 등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음.

- 그 동안 취약한 인프라 등에 따른 높은 생산비에 비해 낮은 원자재 가격으로 사업성 낮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부진했으나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국 및 일본 등으로부터 필리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였음.
-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자원개발 투자 감소의 영향을 받았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향후 필리핀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다. 정책 성과

### □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 지속

- 취약한 세수기반 및 조세징수 제도 미비 등으로 2002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5.4%에 달했으나 아로요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등 적자 개선 노력을 통하여 2007년 GDP의 0.9%까지 축소됨.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경기 부양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 3.9%로 다시 확대되었으나 현 아키노 대통령은 6월 집권 이후 재정 지출 축소에 노력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대한 면세기간 축소, 소득세 면제 혜택 폐지 등을 검토 중이며, 인프라 관련 사업의 경우 민관협력(PPP) 사업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아키노 대통령은 부족한 세수로 인한 부진한 인프라 건설 사업을 민관협력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체의 진출 절차 간소화 및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의한 투자 심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순방 중 직접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음.

- 아키노 대통령은 9월 미국 순방 중 코카콜라 등으로부터 총 24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얻어 내었으며, 11월 중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가지 마루베니, 이토츠, 도시바 등으로부터 총 3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 받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5,347	7,119	3,631	8,552	8,815
경상수지 / GDP	4.6	4.9	2.2	5.3	4.4
상 품 수 지	-6,732	-8,391	-12,885	-8,878	-11,358
수 출	46,526	49,512	48,253	37,510	46,033
수 입	53,258	57,903	61,138	46,388	57,391
외 환 보 유 액	19,891	30,071	33,047	37,504	56,800
총 외 채 잔 액	61,293	66,335	64,987	64,585	67,456
총외채잔액 / GDP	52.1	46.1	38.9	40.1	33.4
D. S. R.	14.1	11.9	11.5	12.8	14.2

자료: IFS, EIU, GDF

#### □ 상품수지 적자폭 축소

- 필리핀은 원유, 식료품,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중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전자제품, 반도체의 수출이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로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의 존도가 높은 원유, 식료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53.6% 증가한 12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 중에는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원유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상품수지 적자가 89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10년 중에는 경기 회복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소비 수요 증가,



반도체 등 전자품목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 수입 증가 및 수입 품목 가격 회복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 상품수지 적자폭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필리핀의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무처리아웃소싱(BPO)과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수지 흑자 및 해외 근로자 송금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를 통해 만회하고 있음.
- 2008년 중에는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규모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49% 감소한 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감소,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 흑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에는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인 증가 및 서비스수지 호전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의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2009년 말 기준 GDP의 10.7%이며, 세계은행이 최고 발표한 보고서'Migration & Remittances Factbook 2011'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자가 2010년 중 해외에서 송금한 규모는 인도, 중국, 멕시코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인 2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근로자 송금 추이 : 144억 달러('07) → 164억 달러('08) → 173억 달러('09) → 138억 달러('10. 9월)

#### □ 외환보유액 증가

- 필리핀 정부는 2010년 1분기 중 달러 표시 채권 15억 달러 및 엔화표시 채권 11억 달러 상당 등 총 31억 달러 가량의 외화표시 국채를 발행하는 등 해외 국채 발행을 통해 사회간접시설투자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최근 해외근로자 송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0년 10월 기준 외환보유액이 568억 달러에 달해 월평균 수입액 대비 2009년 말 7.41개월 수준에서 9.29개월 수준으로 개선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대통령 당선 후 안정적인 정세 지속

- 2010년 5월 10일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전 대통령(1986년~1992년)의 아들인 자유당(Liberal Party)의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Benigno Noynoy Aquino)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 금번 선거 때부터 자동검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선자를 조기에 결정함에 따라 기존에 수작업 개표로 인해 초래되었던 후보 진영 및 유권자간 폭력사태 발생 등의 정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음.
- 필리핀은 80여개의 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당간 정책 차이가 아닌 가문을 중심으로 한 유력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인기 등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는 양상을 보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도 2009년 8월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부정부패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이 급부상하여 대통령까지 당선됨.
- 아키노 대통령은 5월 선거에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제치고 41.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중임.

##### □ 아로요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과의 갈등 발생 가능

- 아키노 대통령이 아로요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를 설치하면서 아로요 대통령과의 마찰의 가능성이 높아져 5월 선거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아로요 전 대통령이 제1야당인 라카스-CMD 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여 현 정권의 정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진실위원회 설치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아로요 대통령 시절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데 차질이 생겨 양측의 마찰 가능성이 그 만큼 감소하였음. 또한 그동안 필리핀의 상하원의원 모두 정당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빈번하게 이합집산을 이루고 대부분 여권에 합류하는 양상을 보여옴에 따라 아로요 전 대통령이 아키노 대통령에 반해 크게 세력을 결집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갈등이 현 필리핀 정세 안정 유지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2. 사회동향

### □ 열악한 치안 및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에 따른 사회 불안 요인 상존

- 필리핀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총기류 및 마약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납치, 강도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함.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대 정부 항의시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으며, 1986년 2월 마르코스 전 대통령, 2001년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퇴진함.

### □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존재

- 이슬람 지역인 민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로 민족해방전선(MNLF)과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ILF), 아부 샤프(Abu Sayyaf) 과격 단체 등 이슬람 단체가 이슬람지역내 완전한 독립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정부군과 무력으로 충돌하고 테러공력을 해옴.
- 2005년 9월 아로요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말레이시아 중재로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해방전선간 개최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어 40여년 간에 걸친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상안에 합의했으나 가톨릭계 시민들 및 의회의 반대와 2008년 8월 대법원의 협상안에 대한 위헌판결로 무산된 이후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음.

- 현재 여러 국가의 비정부기관에서 파견된 60여명의 국제감시팀(Int'l Monitoring Team: IMT)이 이 지역의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아키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이슬람해방전선이 양측간 관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향후 새로운 평화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필리핀 남쪽에 위치한 민다나오 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의 이주로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이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희생됨.
- 루손 섬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 공산당인 신인민군(NPA), 민족민주전선(NDF) 등 공산 반군 또한 최근 병력 감소 및 정부와의 협상 진행 등으로 테러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테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미국과 경제, 군사, 안보 등에 있어 긴밀한 관계 유지

- 미국은 2009년 기준 총 119억 달러(수출 68억 달러, 수입 51억 달러), FDI 7.3억 달러로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임. 또한 미국은 지난 40년 간 50억 달러 이상의 개발 원조를 지원해 왔으며, 미국 내 필리핀 거주민 300만 명과 필리핀 내 10만 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음.
-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슬람 세력 진압 지원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양국이 인식을 같이하여 안보협력관계 유지 강화에 노력해 왔음. 2008년 1월 양국은 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군사물자 수송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음.
- 2008년 중 미국은 필리핀에 3,000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함.

## □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으로 우호적 관계 지속

- 일본은 필리핀의 최대 공적개발원조 공여국(필리핀 수원 총액의 50% 이상)이자 미국 다음의 교역 및 투자국임.
- 2003년 양국은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하고 2008년 필리핀 상원의 비준동의로 발효되었음.

## □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 노력

- 필리핀은 ASEAN의 설립 회원국으로 이를 위주로 지역안보 및 통상 증대를 도모하고자 노력하며,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으나 ASEAN 등 다자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 태도

#### □ 정상적인 채무상환

- 필리핀은 파리클럽으로부터 5차례(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양호한 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의 유입 지속 등으로 대외 유동성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 □ 외채상환 능력 개선

- 필리핀은 재정수지 적자 부분을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로 총외채 규모가 2009년 말 기준 GDP의 40.1%로 외채상환 부담이 큰 편임.

- 그러나 2003년 이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로 해외차입의존도가 낮아져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03년 79.2%에서 2009년말 40.1%로 크게 낮아진 것이며, 2010년에도 33.4%로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총외채 중 단기채무 비중이 2008년 15.4%에서 2009년 12.5%로 낮아졌으며 2010년 중에도 10%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채구조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필리핀은 금년도 성공적으로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채권 스왑을 통해 만기 또한 연장하는데 성공하였음.
- D.S.R의 경우 2009년 12.83%에서 2010년 14.1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금번 평가시 2010년 5월 종전 평가시 인용한 D.S.R. 수치와 달리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수치를 적용하여 해당 연도 수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외채상환능력의 D.S.R 부분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음.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3 (2010.12)	C3 (2010. 5)
OECD	4등급 (2010. 4)	4등급 (2009. 4)
S&P	BB (2010.11)	BB- (2006. 2)
Moody's	Ba3 (2010.12)	Ba3 (2010. 3)
Fitch	BB (2010. 8)	BB (2009. 5)

- S&P는 최근 필리핀의 서비스수지 및 이전외 수지 흑자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대외 유동성 개선으로 2010년 11월 중 필리핀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BB-(Stable)에서 BB(Stable)로 상향 조정하였음.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수은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단기 인수가능, 한도적용 없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49년 3월 3일(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 주요협정 : 항공운수협정(1969년), 무역협정(1978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3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4년), 투자보장협정(1994년)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현황

- 필리핀은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임.
-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2007년 69억 달러, 2008년 81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침체의 영향으로 7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0년 10월 말 기준 7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0년 9월말 현재 1,223건, 13.8억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으로 주로 전자부품, 컴퓨터, 식료품 제조업에 투자해 음.
- 필리핀에 대한 EDCF 지원은 1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2010년 11월말 현재까지 총 3,943억원 승인하고 그 중 937억원이 집행되었음.

## VI. 종합 의견

- 필리핀은 2009년 중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유입 증가 및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1.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중에는 투자 확대 및 민간 소비 증가, 5월 선거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은 취약한 세수기반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키노 대통령이 6월 집권 이후 정부지출 감소 등 재정건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BPO 등 서비스수지 흑자와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하는 등 국제수지 개선 등으로 외환보유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만연한 부정부패, 극심한 빈부격차 등이 경제 구조상 취약점으로 작용하나 BPO 산업 및 풍부한 광물자원은 필리핀 경제의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6월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취임 후 필리핀은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치안과 이슬람 및 공산 반군 등에 의한 테러 위협 등 사회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조사역 이진경 (☎02-3779-6686)  
E-mail: [jinkyung22@koreaexim.go.kr](mailto:jinkyung22@koreaexim.go.kr)